

염종현 도의회 의장 '통합의 길' 강조

경기도민회 신년 인사회 "경기도와 손잡고 분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1일 '2024년 경기도민회 신년 인사회'에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후 서울 더하이트베일에 열린 행사에는 경기도민회 회장단인 유용태 회장, 송달용 명예회장, 이재창 직전회장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문수 전 도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를 둘러싼 많은 일이 있었고, 경기도 미래를 좌우할 다양한 의제, 현안에 대한 논쟁은 새해를 맞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홀어지지 않는 통합의 정신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 최고의 광역단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의 현명한 원로인 경기도민회 선배들께서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염 의장은 "경기도는 최근 몇 년 새 경기도만의 정책과 역동성을 통해 위상을 크게 높여왔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 협치의 새 역사를 써나가며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1400만 경기도민께서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손잡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민회가 큰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민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간 협조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986년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 수는 총 2789명으로 주로 '도내 장학생·예체능특기생 장학금 지급' '경기푸른미래관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김인창 기자

"성사혁신지구 행정절차 필요 이상"

변재석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보완요청 지적해

경기도의회 변재석(민주당, 고양1) 의원이 지난달 31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시설(광호3-7호선 외 1개 노선)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 지역정책과(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인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시 교통영향평가 반영사항으로 고양대로 및 충장로의 교통량 처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한 도로 1개 차선(가감속차선)을 확장하기 위한 도로계획시설(도로) 사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성사혁신지구 준공 예정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그린벨트(GB) 미해당구간 확폭을 우선했으나 교차로 특성상 GB 내 일부 가감속차선을 추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보완요청 사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교통개선을 처리할



변재석 도의원이 지난달 31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 지역정책과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우, 도로 전체 선형 변경이 수반되고 과도한 토지수용(보상) 및 탄소배출 증가 등이 문제로 작용 될 수 있기에 고양시는 기존도로 선형 유지를 통한 업무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 의원은 "성사혁신지구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1호 사업으로 선정·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모든 일

에 절차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토지수용·철거·탄소배출 등 필요 이상의 행정절차를 수반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해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도의 보완요청 사항에 따라 도로 전체 선형 이동 시 도로 확장 구간이 기존 218m에서 1029m까지 대폭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소

관부서인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달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도시재생관리팀)과의 면담을 통해 성사혁신지구 및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인창 기자

군부대·119구조대 방문 격려

인천 강화군의회 군 장병 어려움 청취

인천 강화군의회가 지난달 31일 교동대교 검문소 및 강화소방서 119구조대를 방문해 군부대 장병과 구조대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동대교 검문소에는 해병대 제5여단 예하부대 국군장병 46명이 강화군 북단 교통지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강화소방서 119구조대는 구조대장을 포함한 16명의 대원들이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위문은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서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부대 장병 및 구조대원에게 쌀국수와 라면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박승한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과 대원들에게



강화군의회가 지난달 31일 교동대교 검문소 및 강화소방서 119구조대를 방문해 군부대 장병과 구조대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강화군의회)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 다"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

하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유지남 기자

의회 단신

'축제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이강구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에서 우수 축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국민의힘·연수5,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평가 체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편입·운영됐으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



했다.

이 의원은 "전시성·남비성 축제의 난립으로 지역 축제의 위상이 격하되는 실정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다"며 "장교 끝에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축제 산업 발전 등 순수한 구조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인천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관광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에 대해 지적하는 등 관광 산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인종삼 기자

파크골프장 이용 불편 해소 앞장

김유곤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김유곤(국민의힘·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파크골프장의 관의 거주 이용객이 증가해 인천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시민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위해 장시간 대기로 쌓인 피로감을 덜어주고 인천 시민의 편리를 위해 우선 이용을 보장

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했다.

또 불편 사항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에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고견을 청취해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이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길 바라고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종삼 기자

"주거·결혼 지원사업 대폭 확대를"

장예선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일 제 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저출생 대응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에 머물고 있고,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66명이 줄어 약 10%가 하락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0.33건 하락하고 무주택자 출산율은 최대 0.45명까지 감소한다"며 저출생과 주거문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양 청년동지론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가구 수와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양시 주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생아 감소 원인의 77%가 '신혼부부 감소'로 인한 결과"라며 "청년들이 결혼과 멀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결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결혼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승철 기자

차별화된 오프라인 광고

LED전광판 / 와이드 / 지하철 / 버스

- 도심 한복판 최적의 위치에 성공적인 마케팅 기회
- 고품질의 영상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와이드 조명,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 다양한 옥외광고로 귀사의 성공적인 홍보 기대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이어드립니다.

일간경기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74~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TEL : 032)508-0006 / FAX : 032)293-5030